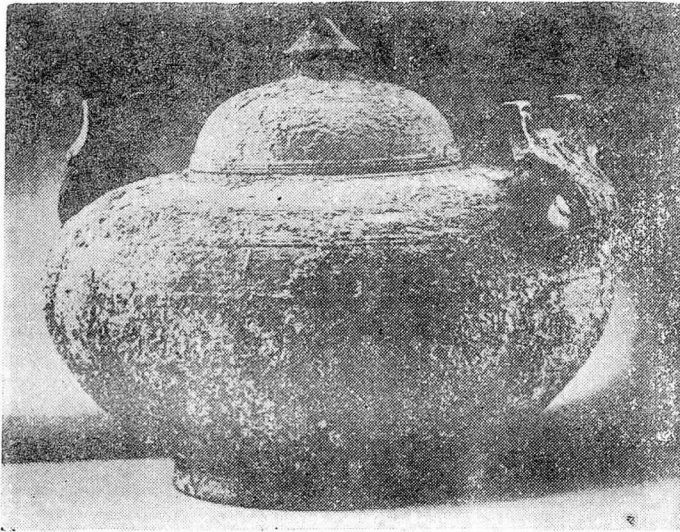


南韓出土의 有蓋兩耳銅壺

梅原末治

第七卷 第八號 通卷七十三號



이銅壺는「考古美術」에 每號掲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十數年前의 出土品으로서 또 이미 國外로 流出된 것이다. 그러나 器는 往年の 韓國 動亂當時 軍務하였던 美國의 Cornelius Castello, Jr., 氏가 마침 南韓에서 求得한 新私掘品이라는 來由가 明確한 것이며 同地區의 出土品으로서 아직까지 前例가 없는 點에서 注目되

는 것이다. 筆者는 一九五四年 訪美하였을 때 當時 檀香山 市美術館에 陳列되고 있던 이 銅壺를 館長식크만氏(Laurance Sickman)의 好意로 實見하고 器가 前漢時代의 特色을 지니고 있는 點에서 그 南韓에서의 出土品임에 깊은 關心을 가졌던 것이다. 그 後 이 器는 美國에서 前漢器의 一好例로서 "Arts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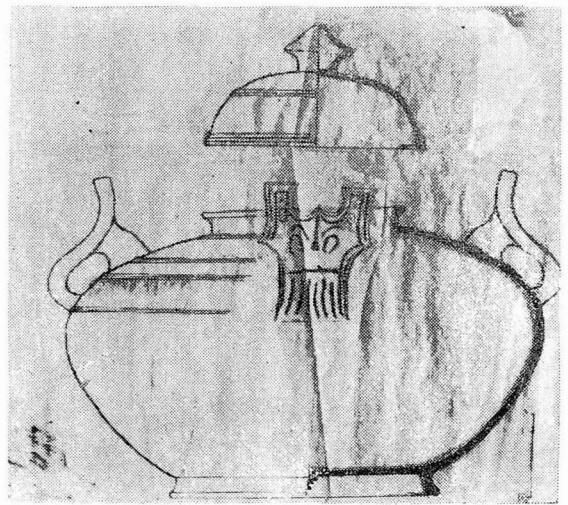


圖 2. 南韓出土 銅壺形狀圖

Han Dynasty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1961"에 紹介되었는데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지금도 全然 閑脚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늦게나마 器의 實際를 紹介하여 그에 對하여 생각하였던 바를 써 두고자 한다.

이 銅壺는 全高 約 一三三cm의 蓋를 具備한 完器로서 靑綠의 鮮명한 銹로써 덮인 發見當時 그대로의 狀態는 遊離되었으나 하나이었을 것으로 짐작케 한다. 器는 橫으로 퍼진 體위에 오물어진 短頸의 口(徑一·二cm)를, 또 底에는 낮은 큰 圓足(徑一五·五cm)을 만듦으로써 完好한 形으로서 體의 上半에는 三條의 帶圈과 頸에 接하여 突帶를 돌린 외의 肩의 兩側에 各 하나씩의 큰 獸面의 把手가 만들어졌다. 이 把手는 平平한 板狀의 表面에 角狀의 突起가 뚜렷한 有鬚의 一型의 獸面을 鑄출한 特色 있는 것이다. 다음에 器의 口緣——이 곳 外周緣에는 突帶가 둘러져 있다——에 外被된 蓋는 徑二·七cm 高六·八cm의 둥근(盛)蓋로서 上面 中央에는 큰 寶珠狀의 鈕가 있고 口緣과 上邊에는 各各 一 器와 同樣式의 帶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器蓋 모두 均一한 厚로 鑄成되었고 器에서는 圓足內의 下底面에 元來의 鑄口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第二圖 形狀實測圖參照).

本銅壺의 作法이 如何한 것도 없이 이 壺가 中國에서 發達된 銅容器로서



3. 中國出土의 陶壺의 一例

의 漢代의 樣相을 갖은 것인데 器形 그 自體가 보여 주는 바는 特히 戰國에서 前漢代에 걸쳐 盛行한 同國에서의 灰釉의 陶壺와 거의 同形이다. 따라서 美國에서 前漢의 遺品으로 鑑定되었다. 右의 陶器의 一例가 되는 第三圖의 器를 本銅壺와 比較하면 그 同似是 더욱 顯著하며 그 兩耳는 全히 다른 點 등은 없다. 따라서

라서 이 點에서 본다면 南韓出土인 本銅壺는 自然히 中國으로 부터 이 같은 古時代에 器가 舶載된 것으로 되어서 하나의 新事實이 될 것이다. 但 이 銅壺에 있어서 注目되는 것은 同時에 만들어진 被蓋가 寶珠鈕로서 그것은 中國에서의 當代의 陶蓋가 대개 鳳獸形鈕인 것과 다르며 그 外形이 보이는 것은 도리어 六朝代로 내려오는 韓半島에서 盛行한 것과 같고 蓋 그 自體에 있어서도 그 같은 觀이 注目되는 바이다. 그런데 現在 아직 中國本土에 있어서는 本銅壺와 같은 鑄銅品은 數 많은 陶壺와는 달리 거의 知見을 缺하고 있다. 따라서 單純히 이것을 古中國에서의 鑄造品으로 斷定해 버리는 것이 當치 않음이 다시금 생각된다. 그리하여 器 自體가 보여 주는 南韓出土의 이 보기 드문 完好의 有蓋銅壺는 器는 오랜 中國에서의 陶質品과 같기는 하지만 蓋形으로 보아서

그 鑄造는 後者에서 推定되는 時期일 것이며 또 元來 半島南部에 오랜 前漢代의 陶壺가 中國에서 舶載珍重되던 것이 있어서 그것이 蓋가 보여 주는 六朝時代에 半島에서 鑄造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推測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一個의 銅壺는 器가 珍貴할 뿐 아니라 遊離된 것이기는 하나 널리 上古의 南韓의 文物觀에의 新資料임이 强하게 意識되는 바이다.

(이 論文은 圖版과 함께 八月初 本會로 送付된 것을 黃壽永 金禧庚 兩人이 譯載하는 바이다.)

## 金海郡의 佛蹟

朴敬源

金海郡은 이웃 어느 地域보다도 新羅 以前의 佛教關係 文化財가 稀貴한 곳이다.

지금 首露王陵 境內에 있는 石燈臺石 一基가 알려져 있는 郡內唯一의 新羅時代 遺物인데 이것조차 그 由來에 對하여는 一切 아는 바가 없다.

(註) 이 臺石은 直徑 一七二cm 一邊 六〇cm 高五〇cm의 八角臺石으로 從來 佛像臺座로 紹介되어 왔으나 石燈臺石으로 분이 옳겠다. 極히 優麗한 八葉의 佛蓮에는 統一新羅期의 特徵이 잘 表現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郡內各地의 大小寺院에는 으레 「駕洛國 首露王 創建」이니 「首露王兄 長遊國師創立」云云하는 傳說이 附會되어 거의 例外가 없다 싶이 되어 있는 것도 金海郡에 限한 特殊한 現象의 하나이다.

筆者는 지난 六月初旬 慶南教育委員會 文化財事務 擔當者인 裴學錄氏와 같이 지금까지의 未調査地域을 數日間 踏査하여 郡內 佛教遺蹟에 關한 새로운 資料 若干을 얻었으므로 그 結果를 대강 紹介하고자 한다.

- x x x
- 一、二北面 安谷里 三層石塔